

맥베스와 12·3 비상계엄

문화향기



김강 호남대 교수

맥베스. 셰익스피어가 1607년경 쓴 작품으로 권력과 쿠데타를 주제로 한 스코틀랜드 비극이다. 충신이자 맹장이었던 맥베스는 마녀들의 주술적 예언을 듣고 왕이 되기 위해 덩컨 왕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한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불안정하고 폭력적이며, 권력 유지를 위해 여러 사람을 살해한다.

맥베스의 쿠데타는 내부 지지 기반의 부재와 잘못된 전략으로 인해 바로 파멸로 추락한다. 자신의 지지자였던 벵코우를 제거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외부 세력과의 네트워크에도 실패한다. 마침내 맥베스의 폭정에 반발한 귀족들과 왕자가 연합하여 그를 무너뜨린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에서 권력의 유혹과 그로 인한 정상의 붕괴를 보여주며, 예언과 운명에 대한 인간의 자유 의지를 탐색한다. 맥베스는 마녀들의 예언에 사로잡혀 자신의 운명을 악으로 이끈 비극적 인물이다.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도 어찌 보면 그의 또 다른 후계자일 것이다.

맥베스의 쿠데타에는, 마치 지금 우리의 현실을 예견한 듯, 매우 흥미로운 역할이 등장한다. '레이디 맥베스'의 개입이다. 맥베스 부인의 성격과 행동은 작품의 전개와 주제를 좌우할 정도다. 그녀는 야망과 권력의 화신이다. 남편 맥베스보다 더 야심적이고 무자비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녀는 덩컨 왕을 살해한 후 왕관을 차지하는 음모를 직접 세우고 남편을 집요하게 몰아간다. 그녀의 악독한 의지와 결정력은 맥베스를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세계로 '유혹'하기에 권력과 야욕의 위험성을 예고한다.

레이디 맥베스는 당대의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다르게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서슴지 않는다. 남편을 조종하고 그의 남성성에 도전하여 반란을 실행토록 제언한다. 이러한 성역할의 전복은 셰익스피어가 성별과 권력의 관계를 규명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그녀는 자신의 여성성을 포기하고 남성적 특성을 가지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밝힌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야망에 사로잡혀 사악한 존재로 변모할 수 있음을 작가는 미리 경고한다.

그러나 극이 진행됨에 따라 레이디 맥베스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살인의 악령을 주문할 정도로 남편을 독하게 통제하던 그녀는 양심의 가책에 정신적으로 붕괴하여 자살에 이른다. 그녀의 최후는 망상적 권력 추구가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로서 도덕성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전달한다.

기막힌 우연이다. 맥베스의 악행이 바로 얼마 전 대한민국의 상황과 그림자처럼 겹친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느닷없는, 어이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명태균과 김여사는 요셋말로 '피처링(feat)'한 셈인가. 영국의 한 매체는 그녀를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 마키아벨리, 마리 앙투와네트, 심지어는 성형 제왕 마이클 잭슨에 비유한다. 엄청난 시공간을 뛰어넘어 쿠데타에 의한 권력 남용과 정치 불안이라는 주제를 서로 기막히게 공유한다.

맥베스는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덕적 경계를 넘어서며 왕을 살해하고 권력을 찬탈한다. 그의 행동은 스코틀랜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자신의 몰락을 초래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이와 유사하다. 국회의 반국가 활동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며 언론 통제를 획책한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불안을 가중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정치적 야망과 도덕적 타락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맥베스는 마녀들의 예언에 자극받아 왕이 되려는 야심을 위해 살

인을 저지른다. 그의 도덕적 타락과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진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신의 무능을 감추고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었지만 정치적 야망이 도덕적 기준을 무시할 때 생기는 참담한 결과를 입증한다.

이러한 권력자는 시종일관 권력에 몰두하고 정치적 불안을 야기한다. 맥베스는 권력 수호에 점점 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자신의 불안과 종말에 다가설 뿐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려 했지만, 외부 세력에 의해 무너진다. 윤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로 정권 사수의 역전을 꾀했으나 오히려 국내외 반발과 저항에 처했다. 평상담지 않은 국회의 신속한 계엄해제 표결 덕분에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떴창하게 된 것은 천우신조랄까.

흔히 국가를 전복시키는 행위를 쿠데타(coup d'etat)로 부른다. 프랑스 용어인 이 말의 본뜻은 '국가를 향한 타격'을 의미한다. 맥베스처럼, 대개는 하위 권력이 초법적 수단을 통해 상위 권력을 찬탈하며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일컫는다. 반면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친위 쿠데타'에 속한다. 쿠데타 연구자인 미국 카네기 멜론대 존 친 교수는 이를 현직 정부 수반이 사법부나 의회와 같은 다른 권력을 상대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연장 또는 확대하려는 시도로 정의한다.

오늘 "불화의 겨울"이 지나면 다시 맞이할 '서울의 봄', 왕권을 노리는 여야 정쟁이 극심해질 듯 걱정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정치가 국민을 위한다면 정작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염치 불고, 적반하장과 유구무언이다. 정치가인지 범죄자인지, "선이 악인지, 악이 선인지" 마녀들의 말대로 혼돈이다.

맥베스의 마지막 독백처럼, 대한민국의 "내일은...해보 천치가 지껄이는,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 되어야 한다.



기고 이연호 인구보건복지협 전남 100인의 아빠단 6기 단장

100인의 아빠단과 함께한 6년의 육아 회고록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을수록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능력, 자아 존중감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돼야지 다짐했었지만 실제 내 아이가 태어나자 예전 다짐이 무색하게도 좋은 아빠와는 거리가 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업무와 야근으로 지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 때도 있었지만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업무로 느껴졌지요.

그러던 중 2019년 '전남 100인의 아빠단 1기'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아내에게 듣고서 처음엔 아빠단 활동이 번거롭고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들었지만 아이와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아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다양한 육아 미션을 실천한 후 100인의 아빠단 커뮤니티에 게시해 전국 각 지역의 아빠들과 육아 노하우를 나누는 아빠단 미션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너무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진심으로 즐기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요리하기, 쓰레기 주우며 산책하기, 여러 운동을 통한 신체활동, 가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미술 활동 등 재미있고 유익한 아빠단 활동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고 아빠에게도 많은 보람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1기부터 6기, 첫째부터 둘째 아이까지 함께한 6년간의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돌이켜 보면 최우수상을 받아 아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자랑스러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6기 단장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며 스스로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첫 번째 성장은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빠의 역할이 육아의 보조자가 아닌 공동 책임자라는 것과 육아란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

부가 함께 같이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실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 활동을 다양하게 접하며 예전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지만 100인의 아빠단 미션을 통해 실내에서도 아이와 신나게 노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중 제 아이들은 특히 이불로 하는 놀이를 좋아해서 이불 그네 태워주기, 이불 썰매 끌여주기, 이불로 아이 김밥 말기는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놀이입니다. 간단하지만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매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육아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아이들과 긍정적인 정서를 공유한다는 보너스도 함께 따라 왔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 이제는 내 아이의 내면을 알고 아이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특별히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낯선 것인지 등을, 아이의 마음속을 이전 보다 한 뼘 깊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의 특성을 알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도 친구도 아닌 부모뿐입니다. 100인의 아빠단이 저에게 그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통해 아이와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육아 교육부터 다양한 놀이 및 체험 프로그램까지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이제 육아는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보람된 활동이란 걸 알았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기에 더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앞으로의 삶도 행복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ps: 다현, 로운아!! 앞으로도 아빠가 더 많이 놀아주고 안아줄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자 사랑해!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b@jnilbo.com

전남일보 페이스북 facebook.com/jnilbo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